

다급한 靑 ‘영수회담’ 카드…격앙된 野 ‘퇴짜’

청와대·야권 정국 수습책 대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영수회담 카드를 내세웠으나 야권의 냉담한 반응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여야의 영수들이,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회담할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로 이정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쟁 중에도 회담하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서는 역시 국회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김병준 총리 인준 문제도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절차 문제를 인정하고 모든 문제는 영수회담에서 의제에 구애됨 없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여야 각 정당의 대표자가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의 개최 시점에 대해 “내일이나 모레”라고 희망했다.

한 비서실장은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잇따라 방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거부 입장을 밝혀 만나지 못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제1, 2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영수회담 개최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광옥 “책임총리에 모든 권한”

2선 후퇴는 현행법에 없다 거부

野 “정국 주도권 안놓겠다는 속셈”

박지원 “김병준 내정 철회부터”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추 대표는 총리 내정을 철회하고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한 실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 비서실장에게 김 내정자 지명철회와 박 대통령의 탈당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영수회담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접고 야당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영수회담이 개최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남아있어 또 다른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 보장 문제와 관련, “현행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김 내정자에게 드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심각한 투톱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정한 대표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 문제 등을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선 후퇴란 표현이 책임내각, 거국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하는 것이지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 김 내정자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대한 정치적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김 내정자에게 책임총리 (권한을) 주겠다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에서 물러나 일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2선 후퇴’ 개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일 것이 확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병준 “여·야·청 총리 합의하면 나는 없어지는 것”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7일 “여·야·청이 합의의를 봐서 좋은 총리 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제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조건부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엄두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 번 되어볼까 하는 심정이다. 그렇지만 성능 좋은 난로가 나오면 화로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어 “불이 오면 열음은 녹아 없어진

다. 그런데 열음 때문에 불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에서 김 내정자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청와대와의 합의로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총리 내정자에서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도심 곳판 참석 논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다만 박 내정자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을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직 국회의장들 “대통령 권한 넘기고 2선 후퇴해야”

여야 출신 6명 오찬회동

조기대선 실시 목소리도

전직 국회의장들이 7일 대거 한자리에 모여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김수환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정의화 등 전직 의장 6명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 의장들도 최근 정국의 혼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 2선 후퇴와 조기 대선 등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의장은 “대통령은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내각에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하며 앞당길 수 있으면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다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역시 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전 의장도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의장들도 다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생각이었다”며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수습해가는데 중심에 서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회동 후 ‘대통령 탄핵·하야 얘기’도 나왔느냐는 질문에 “다 얘기했다”고 답했다.

여당 출신 의장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나, 현 시국이 큰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박희태 전 의장은 “모임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혼란을 수습할 정치 주체인 정당들이 나서야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아는데 청와대의 일에 뭐라고 할 것이냐”라며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날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광화문 굿판 참석…이번엔 박승주 ‘논란’

안전처장관 내정자 전생 체험 책도 내…야권 일제히 사퇴 촉구

사이버 교주인 최태민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하야 위기에 몰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다시 역제가 터졌다.

청와대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한 박승주 (64·영광 출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굿판에 참석하고 명상을 통해 전생을 47회 체험했다는 내용 등을 기술한 저서 등이 알려지면서 야권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13년 5월 출판한 ‘사랑은 위함이다’라는 책에서 “필자가 명상 공부를 할 때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필자는 이 지구 땅에 47회나 여러 다른 모습으로 왔었다”고 썼다.

그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찾아와 조선 말기 왕의 일기인 ‘일성록’을 건넸다”고 밝히는데 이어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이 메모리 칩 두 개를 갖고 하늘로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내정자는 안소정 하늘빛명상연구원을 자신의 큰 스승이라고 밝혔으며 안 원장이 총재를 맡은 정신문화예술인총연합회의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 5월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국중대회(國中大會) 대한민국과 한(恒)민족 구국천제 재현 문화행사’를 주관했으며 박 내정자는 진행위원장을 맡았다.

국중대회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등과 같은 재현행사이며 이를 재현한 당시 행사는 사물놀이 지신밟기, 하늘춤 천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천제, 기도명상(구국기도), 나라안녕국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 내정자는 당시 ‘구국대제전 천제 고유문’에서 “오늘을 계기로 천손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발취하여 일신강종 성통광명 제세화와 홍익인간의 훈요와 같이 강력하고 끈끈한 사랑의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완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일제히 박 장관 내정자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자질과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교과와 서울대를 졸업한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호로 공직에 입문한 뒤 여성가족부 차관, 광주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

2016年 11月 10日 - 11月 13日
보성 컨트리클럽

2016년 KPGA 시드권이 결정되는 마지막 대회!

갤러리 1등 경품 제네시스를 잡아라!

총 상금 | 3억원

주관 | KPGA, KPGA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주최 | 카이도코리아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클럽)

후원 | LOHASYS, 카이도사랑나눔연대(비영리법인), 보성군, Dennis GOLF